

코스피지수 1,415.16 (+3.03)

코스닥지수 523.91 (+6.08)

금리(국고채 3년) 3.93% (+0.03)

원·달러 환율 1,237.90원 (-9.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車 부품업체 글로벌 마케팅 강화

광주테크노파크 2012년까지 48억 투입 해외 시장 개척·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

광주 자동차 부품업체가 연산 80만 대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해외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에도 나서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 역량 확보에도 돌입한다.

(재)광주테크노파크는 11일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48억원을 투입해 160여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

상으로 ▲신규 마케팅 창출 지원 ▲신제품 기획 역량 강화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에 나선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신규 및 틈새 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012년 연간 자동차 80만대 생산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다.

신규 마케팅 창출 지원은 시장 및 마케팅 환경을 종합 분석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별 타겟 시장을 선정해 해외 마케팅까지 컨설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

로 기술 평가를 해주는 한편, 금융기관 보증까지 연계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모두 30여개사가 업체당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신제품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선과 신규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이 지원된다. 기업이미지 통합이나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의 혜택도 준다.

특히 수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한다. 30여개에 업체당 최대 1천500만원이 지원된다.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은 시장 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광주국제자동차 로봇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모두 1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이와 관련 13일

오후 3시부터 350여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광주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및 관련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에는 광주테크노파크 비롯하여 KOTRA,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디자인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설명 및 질의 응답 시간 등을 갖는다.

남현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자동차 부품 시장을 해외로까지 넓힐 수 있게 제품의 개발과 디자인 개선, 마케팅 등 모든 분야를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자동차 80만대 생산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11일 선주사인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에 인도된 17만500t급 벌크선인 '골든 슈이'호가 위용을 드러냈다. (대한조선 제공)

대한조선 다섯번째 선박 '골든 슈이' 인도

내달엔 해외 수주 활동 본격화

대한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조선은 11일 해남조선소에서 다섯 번째 건조 선박인 '골든 슈이(Golden Shui)'호를 선주사에 인도했다.

이 선박은 길이 289m, 폭 45m, 깊이 24.2m에 최대 15.4노트 운항할 수 있는 17만 500t 벌크선으

로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이 발주한 8척의 벌크선 중 4번째 선박이다.

대한조선은 또 내달 9일부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2009 노르쉬핑(Nor-Shipping)'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 수주전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조선은 이번 박람회에 참가

해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급격한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1천73개의 조선업체가 참여하고 1만4천명 이상의 바이어가 다녀갈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번 박람회를 선주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국산 쌀 수출 활기

올들어 706t... 지난해보다 10배 늘어
국제 곡물가 급등 가격 경쟁력 확보

국산 쌀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11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쌀 수출량은 706t(116만1천 달러)으로 작년 동기의 61t(19만1천달러)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쌀 수출량 358t의 배에 달한다.

쌀 수출이 급증한 것은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산 쌀이 상대적으로 싸진 데다 환율 상승까지 겹쳐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aT는 분석했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 종립종의 kg당 가격은 1천6원(원화 환산·공정 출고)으로 국산 쌀의 2천32원(산지 쌀값)과 격차가 컸다.

그러나 올 1월 미국 쌀과 국산 쌀의 kg당 가격은 1천483원 대 2천60원, 2월엔 1천537원 대 2천51원, 3월 1천642원 대 2천48원, 4월 1천629원 대 2

천40원으로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 국산 쌀은 비(非)유전자변형작물(non-GMO)이란 점과 중국산 등 저가 쌀보다 품질이 월등한 점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호주에 대한 수출액은 1만6천 달러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4개월 동안에만 42만7천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4월 뉴질랜드에 대한 수출액은 8만3천 달러로 작년 연간 수출액 1만3천 달러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호주는 지난해 가뭄으로 쌀 생산이 대폭 줄면서 올해 들어 쌀 수입을 늘리고 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국산 쌀의 수출 경쟁력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환율 7개월만에 1230원대 하락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230원대로 떨어졌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10원 하락한 1,237.90원으로 마감했다. 3거래일간 39.10원 급락하면서 지난해 10월14일 1,208.00원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15.00원 급락한 1,232.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저가 인식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41.50원으로 올랐지만 매물이 나오자 1,230원대 중반으로 밀렸다. 환율은 이후 1,

235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나서 장 막판 매수세 유입으로 하락폭을 일부 줄였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주가 강세의 여파로 환율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가가 금융 관련 불투명성 해소로 큰 폭 상승한 데 이어 코스피 지수가 1,410선으로 오르면서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외국인이 2천700억원가량 주식을 순매수한 점도 원화 강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오늘 호남권 설명회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호남권 설명회가 12일 오후 2시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다.

청년실직자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

하고 사회서비스를 개발·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지난 8일부터 공모를 시작했으며 오는 25일까지 확정된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554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전국에서 200곳을 선정, 1곳 당 평균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 7천920개가 제공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하반기에도 대졸자 '취업대란'

불황에 공기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신규 채용 불투명

대학졸업자의 '취업 대란'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황에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이 맞물리면서 공기업과 금융권이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공기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아예 계획하지 않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다. 상당수 금융회사의 채용 규모도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작년 하반기에 신입사원 88명을 뽑았으나 올해 하반기에는 채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전력은 하반기에 200명 정도 뽑는 것을 내부

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정원을 2012년까지 2천442명 감축해야 하는 상황 이어서 현실화될지 불확실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하반기에 11명을 신입사원으로 받아들였으나 올해에는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오는 10월 통합되는 만큼 신입사원 채용에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6년에 80명, 2007년에 32명을 각각 뽑았으나 작년 에 이어 올해에도 신입사원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인턴들의 대부분은 하반기에 실업자로 하반기에 200명 정도 뽑는 것을 내부

이 끝나지만 공공기관들은 예산문제와 성과 미진 등으로 청년인턴제 유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금융기관들은 일반 공기업에 비해 채용역량이 나은 상태이지만 청년 실업자들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은행은 작년 하반기에 29명을 채용했으나 이미 정원이 정부의 가이 드라인보다 초과한 상태여서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도 작년 하반기에 18명을 뽑았으나 올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화재는 올해 하반기 채용규모가 8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0명에 비해 줄고 롯데손보는 80명에서 25명으로, 미래에셋은 81명에서 20명으로 각각 감소한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민)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본점, 대인동 소생서건4번)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민)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00평(매가 78억) 보증금 37억/월세3,000만원 용자 12억
- 토지500평 건물 1,500평(매가 86억) 보증금 7억/월세 6,000만원 용자 4억

▶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834.5㎡(260평) - 매가평당1,300만원 (출입버스국립과 매가박스 중간거리키도)
- 833㎡(250평) - 평당 880만원 (미연세 호텔 주변 식당 유흥업소 지형)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상무 우리를 병원 주변)

▶ **기타용도**

- (농장) 그린벨트 73,000㎡(2만2천평) 평당 9만원 (등산용) 정가부지로 좋은 곳
- (정물) 주거지역 3,760㎡(1,140평) 평당 40만원 건설사 현장사무소

▶ **호텔, 모텔**

- 상무지구 객실 35개 직영(매가 28억) (2층 유흥주점 보증금 3000만/월 450만원)
- 현금 45억 투자로 월수 1억 가능한 모델 및 호텔 운영상당 환영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목장용지급매

☎ 위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367, 367-6, 367-9 등 10개번지

☎ 목장용지: 12343㎡(3734평)

☎ 면적: 2350㎡(약700평), 축사(한우 약 50두 이상 사육가능), 견사 주택(104㎡), 염소막사, 버서재배사 등

☎ 매도가: 1억 7천만원(은행대출 1억포함)

연락처 ☎010-3617-8810

두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2009년 윤달 5월에 개장하실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안전과 전통적인 집단식 및 친족, 이웃 간의 상호부조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협창

근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